

태국내 소수종족에 관한 연구*

김영애

언어를 비롯해 종족, 역사, 종교, 봉습 등 문화가 제각기 다른 소수 종족들이 모여 사는 태국을 많은 학자들은 기대한 용광로로 비교하고 있다. 갖가지 개체를 펼펼 풀여 단시간에 녹임으로써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이다. 이 용광로 속에는 인종적으로 대단히 많은 종족이 있지만 타이족을 비롯해 화교, 타이무슬림, 고산족 등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다.

타이무슬림이나 고산족에 비해 타이족과 유사한 문화를 지닌 화교는 13세기 이전부터 태국인과 함께 어울리며 태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교들은 태국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졌다. 정부는 화교에 대하여 태국식 교육, 속지주의 등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미 문화적으로 동화된 화교를 법적인 태국인으로 통합하였다. 물론 화교들도 태국 정부의 이러한 태국 국적 취득을 유도하는 방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켰다.

종교 때문에 불교도인 태국인과 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여겨졌던 타이무슬림은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문화적 통화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교육을 통해서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불교도인 태국인과 무슬림인 태국인은 서로를 이해하고 합일점을 찾아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무슬림들의 종교와 전통적 문화를 존중한다는 기반 위에서 서로 돋고 있다.

종족 특유의 문화와 특성의 고수, 화전과 양귀비 재배, 삼림훼손과 이에 따른 수원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고산족은 외부 세계와는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한다. 태국 정부측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태국인으로서의 애국심과 국민 의식이 없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산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정부는 교육과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태국인으로서의 국적 취득을 실득하고 태국인으로서의 애국심과 의식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소수 종족에 대하여 태국 정부는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각 종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각 종족에 맞는, 태국 국민으로 통화시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한마디로 태국 정부는 교육 확대, 양보, 설득, 홍보 등의 방법으로 때로는 문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왕실은 이러한 소수 종족의 문화 보존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통화 속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I. 서 론

국가와 종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태국은 거대한 용광로에 비유된다. 지형적으로 인도지나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는 인도문화권에 속해 있는 태국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여러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현재 태국에는 타이족을 비롯하여 라오, 몽, 중국인, 인도인, 중동인, 서양인, 말레이인, 고산족 등이 커다란 불협화음이 없이 함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께 어우러져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타이족이 13세기초에 쭈코타이왕국(13C-1438)을 건설하기 전까지 이 지역은 몬족(9C-13C)과 크메르족(9C-13C)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타와라와니(약 6C-11C)과 씨위차이왕국(9C-13C)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족이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대의 전쟁 형태가 천연 자원이나 영토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자국의 인구를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태국의 왕들은 패전 지역의 주민을 태국 영토 내로 강제 이주 시켰고, 반대로 태국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점령지역의 주민들이 승전국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쭈코타이 시대를 거쳐 아유타야 시대, 라따나고周恩(짜끄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잦아졌다.

인도지나 반도내에 타이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 쭈코타이왕국을 꼽고 있다. 크메르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세워진 이 나라의 3대왕인 람캄행왕(1279-1300)이 문자를 창제하여(1283)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려고 시도한 것도, 또 남방 불교를 도입하여 국민을 종교적으로 교도하고 순화하여 타이족과 함께 하나로 동화시키고자 애쓴 것도 바로 여러 종족을 문화적으로 통일시키려 했던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태국내의 소수 종족 중에는 화교의 수가 가장 많다. 여기서 화교는 대체로 20세기 초반에 이주해 온 중국인들로, 아직 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과 신분 증명서에는 “Thai citizens of Chinese origin”이라고 표시된 태국 국적의 중국인, 그리고 태국에서 출생하여 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 중국인 2세와 3세를 의미한다 (Jiang Bai-Chao, 1990:225-242). 1989년에는 태국내 화교의 수가 7-8백만명으로 추산되었다(Chen Jianmin, 1990:237). 그러나 중국 국적만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인의 수는 현재 점차 고령화되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37년에는 50만명 이상으로 전 태국 국민의 3.7%를 차지하였으나, 1988년에는 25만 정도로 감소하여 전 인구의 0.5%를 차지할 뿐이다(Jiang Bai-Chao, 1990:228).

이슬람교는 타이족이 이 지역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전파되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지역에는 씨위차이왕국이 멸망했을 때 이미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람캄행왕이 나豢씨탐마랏(Ligor)을 정복하려 갔을 때 이 지역은, 특히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지역에는 이슬람이 전파되어 있었다. 추측컨대 9세기경부터 중동인들은 말라카해협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을 것이며, 이슬람교는 이 상인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을 것이다. 태국의 기록에 의하면 중동 상인들은 아유타야 성곽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을 태국 인들은 “캐텟(중동방)”이라 불렀다고 한다(Chalainadecha, 1988:42). 이들은 주로 아랍 지역과 페르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회교사원을 건축하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태국인화되었다(Chalainadecha, 1988:5).

태국의 이슬람교도를 태국인들은 타이무슬림(Thai-Muslim)이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는 태국에서 제2의 종교이다. 특히 남태의 타이무슬림이 사용하는 말레이어의 방언인 야위어(자위어)도 역시 태국어 다음으로 제2의 공용어이다. 타이무슬림은 크게 캄파니무슬

럼, 인도무슬림, 파키스탄무슬림 그리고 중국무슬림으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약 26,000곳의 회교 사원과 520만명 가량의 신도가 있다. 타이무슬림의 종교적 지도자로는 쫄라라차본뜨리가 있다.

고산족들도 역시 타이족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전부터 거주하였다. 이들은 태국과 미얀마,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 다시 말해 약 800~2,000m의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여 소규모 종족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태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중국 남부와 과오스, 라오스, 미얀마, 인도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독특한 농업방법과 생활양식,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매형썬, 람빵, 람푼, 프래, 파야오, 난, 치앙마이, 치앙라이, 우타이타니 등 북부 국경지역과 쭈꽌부리, 쭈코타이, 깐짜나부리, 깁펭펫, 딱, 뗏차분 등 중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고산족으로는 무씨(Lahu, Mussur), 메우(Meo, Miao, Hmong), 야오(Iu Mien, Mien, Yao), 리씨(Lisu, Lisaw), 이꺼(Akha, Ekaw), 까리앙(Karen, Yang)을 비롯하여 카무(Kha Mu), 허(Haw), 턴(Htin), 타이아이 등이 있으나 앞의 여섯 종족이 그 중 많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농틀어 고산족이라 칭한다. 인간의 왕래가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 거주하고, 또 그 거주지마저도 일정하지 않아 고산족에 대한 정확한 인구 조사가 불가능하나 그 수는 대략 4-50만 정도라 한다(Burusapatanan, 1985:8-9).

본 논문에서는 태국내 소수 종족 중 가장 대표적인 화교, 타이무슬림 그리고 고산족의 전래과정과 정착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태국 정부가 이 소수 종족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화시켜 태국 국민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II. 소수 종족의 존재 및 발전의 역사적 배경

1. 화교의 존재 및 발전의 배경

13세기말부터 중국과 농남아내 국가들은 매우 원활한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맺어 왔다. 태국도 역시 조공사절단을 파견하여 중국황제에게 예를 표하고 경이적이고 이국적인 물품을 구하였다(김영애, 1986:51-53). 카쩐교수는 중국인들은 타이족이 13세기에 인도지나반도에 정착하기 전부터 타이반 연안의 항구에 정착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Angkinanta, 1972:7 재인용). 이 당시 중국인들은 농남아국가의 주민들에게는 “자존심있는 주인국”의 국민이었다. 특히 짜오프라야강의 하류에 수도를 정한 아유타야 왕국(1350-1767) 시대에는 대외무역이 성하여서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짜오프라야강의 하류, 빠따니, 타이반 연안 등 주요 무역항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이때 중국 상인들은 태국왕의 비호를 받았으며 태국에 대하여 기여도가 큰 중국인들은 관료로 등용되기도 하였다(Skinner, 1957:1). 아유타야왕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태국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한 중국인들이 겸손한 태도로 행동하였고, 태국인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스스로 태국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

이다. 또 외모상으로 중국인은 태국인과 유사했으며, 신앙이 서로 비슷했으므로 어렵지 않게 통화되었다. 그리므로 태국내 중국인들은 여타 외국인과 달리 태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중국 물품에 대한 왕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뼈라加快发展(1630-1655)은 중국인 상인을 고용하여 왕립부역을 시작하였으며, 이 무역업부를 담당하는 관리로 중국인을 고용하였다. 왕립금고의 회계와 물품관리를 위하여도 중국인을 채용하였다. 이 시기부터 태국의 무역은 중국인들이 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64년 나라이왕(1656-1688)때 네덜란드가 태국의 왕립부역을 제한하고 자국이 태국 무역을 독점하기 위하여 전함을 앞세운 외교 끝에 맺은 조약 내용에 “태국 정부는 왕립 부역이라 해도 중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인을 태국에 입국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중국인에 대한 태국 무역의 의존도를 알 수 있다(김영애, 1986:119).

나라이왕 때에는 매우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정착한 듯하다. 선교사와 외교사절단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아유타야시는 런던이나 파리 만큼 커고 사람의 왕래도 많았다고 한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서양식 학교를 열고 종교교육을 하는 등 외국인과 태국 평민과의 접촉이 잦아지자 나라이왕은 태국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발하였는데, 이때 외국인은 “서양인, 영국인, 네덜란드인, 오스트리아인, 쟈바인, 종교가 다른 말레이인”으로 정하였으며 중국인은 제외되어 있었다(Skinner, 1957: 6). 이 사실은 이미 태국인이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극히 보편화되었거나, 중국인을 이미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유타야 시대에 태국으로 온 중국인은 모두 미혼 남성이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적을 이룬 뒤 귀국한 사람도 있었지만 태국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이들의 자녀를 “룩쩐”이라 했다. 16세기경 아유타야시의 전체 인구 중 1/4 이 중국인과 룩쩐이라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았다(Skinner, 1957:3). 이들의 직업은 상인, 관료, 의사, 예술인, 농부, 인부였으며, 이 중 상인이 제일 많았다. 아유타야왕국이 미얀마에게 패하자 아버지가 중국인이었던 딱션은 구국운동에 앞장 서서 미얀마군대를 축출해내고 국내 반란군을 진압하여 톤부리왕국(1767-1782)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딱션은 타이만 해안에 거주하는 때찌우(Teochiu)출신의 화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톤부리왕국 때에는 때찌우출신의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이주하였다.

라파나고신왕국(1782-현재)의 라마 1세가 수도를 방콕에 정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을 때 학교 인부가 많이 참여하였다. 라마 3, 4세 때(1824-1851, 1851-1868)에는 중국의 납부로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이동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특히 1860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중국인 인부 무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인의 대이주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서구 열강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최강국이었으나 사실상 전근대적 농업국가였다. 토지와 부는 소수의 지주계급에 집중되어 있었고 국민 대다수는 가난한 농부였다. 19세기에 들어서 중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아편전쟁으로(1839-1842)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1915-1922년 사이에는 10여개의 내란이 일어나 국내의 지방경제가 붕괴되었으며

가뭄, 홍수 등 재난도 잇달아 기우 등 아사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땅을 웠은 농부와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수에즈운하의 개통(1869)과 더불어 동남아가 급속히 달라지자 중국인들은 일화천금의 꿈을 안고 동남아로 이주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 주었다. 화교의 일부는 계약에 따라 일한 후 귀국하고, 일부는 태국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하였다. 한편 태국도 1855년에 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경제가 급속도로 변하였다. 특히 쌀이 수출품이 되면서 경제구조가 바뀌었다. 따라서 정미소, 제재소, 해상 운송업이 발달하게 되자 더욱 더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자 태국 정부는 이민법을 1927년에 정하였다. 1927년부터 1941년 사이에 매년 이민 온 중국인의 수는 평균 18,000명이었으며, 1941-1950년에는 매년 15,00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1947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이민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1950년에 태국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중국인 이민자의 수를 매년 200명으로 제한하였고 다시 1979년부터는 연 100명으로 축소하였다(Jiang Bai-Chao,1990:229).

2. 타이무슬림의 존재 및 발전 배경

타이무슬림은 수니(sunni)파이며 싸이부리(Kedah)에 거주하는 말레이족과 같은 혈통이다. 태국 전체 무슬림의 4/5가량이 캥따니 즉 말레이족으로 언어와 문화상 말레이와 더 친근하며 태국 남부의 4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타이무슬림은 크게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로 구분되는데 4/5가량이 말레이계고 나머지는 비말레이계로 타이족, 키스탄, 인도인, 중국인 등이다.

태국의 남부는 이슬람을 민는 사람들로 단결되어 있다. 타이무슬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남부태국이다. Wyatt(1984)의 주장에 따르면 빠따니(Pattani)는 동남아 이슬람의 총본산으로 태국남부 지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다. 빠따니 지역에 존재했던 최초의 나라는 랑까주까왕국으로 불교왕국이었으며, 말레이반도 동부 무역의 중심지였다. 13세기 후반에 쭈코타이왕국의 속국이 되어 쭈코타이왕국에 조공을 바쳤으나 내정 문제는 자치를 인정받았다. 이슬람이 이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대략 이 시기로 추정된다. 말라카(Malacca)가 포르투갈에게 점령당하고, 짜오프라야강의 중앙저지대에 아유타야왕국이 강해지자 아유타야왕국의 속국이 되었다. 1511년에 말라카 회교국이 망한 후 빠따니는 말라카의 뒤를 이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아유타야왕국이 망한 후 빠따니는 독립하였는데 이때가 최전성기였다. 1688년에 정권이 끌란딴(Kelantan)으로 이양되었으며, 1785년에 태국 영토의 일부로 합병되었으나 자치를 인정받았다. 그 후 1791년에 태국정부가 태국인 관료를 빠따니 총독으로 임명하자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817년에 태국은 이 지역을 7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 쟁클라에 파견된 태국인 총독의 간통 및 지시를 받게함으로써 서서히 태국의 행정체제내에 흡수하려고 하였다. 회교도 왕인 술탄을 태국 관료서열의 2등급인 프라야로 임명하고 태국 정부에 대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라마 5세(1868-1910)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중앙집권화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이 지

역은 태국왕의 직접 관할을 받는 도로 편입되고, 당시 이 지역의 왕인 술탄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말레이로 망명하였다. 1909년 영국과 태국간의 조약에서 영국이 과시 빠따니왕국의 영토에 대한 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자 빠따니는 말레이와 태국 두 나라의 지배를 받는 폭이 되었다.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슬람 지도자들이 태국에 대하여 성전(聖戰)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태국에서 분리하여 영국 통치하의 말레이와 합병하려고 시도하였고 1948년에는 유엔에 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2차세계대전 중에는 말레이에 합병되기를 바라며 영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전후에 영국이 1909년의 조약에 따라 끌란딴, 뜨랭가누, 빠를리스, 깨나만을 말레이 영토로 인정하자 말레이와 합병하고자 하는 타이무슬림들의 꿈은 깨졌다.

2차세계대전후 말레이 공산당(CPM:Communist Party of Malaya)과 말레이 민족주의가 대두되어 이슬람 분리독립운동이 말레이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특히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에 자극받은 난태(남부태국)의 타이무슬림들은 빠따니를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1947년에 하지쑤롱은 난태의 자치를 요구하며 다음을 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Chandumpai, 1987:233). 첫째, 빠따니, 얄라, 나라티왓, 싸둔의 최고통치자로 이슬람 지도자를 선출한다. 둘째, 난태에서 근무하는 관료의 80%를 말레이에게 태국인으로 한다. 셋째, 이 지역에서 말레이어를 제2공용어로 한다. 네째, 말레이식 초등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다섯째, 이슬람법과 이슬람식 재판제를 도입한다. 여섯째, 난태에서 정수된 세금은 난태에서 사용한다. 일곱째, 위에서 언급한 이슬람지도자로 구성된 이슬람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이슬람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뾰리니정부는 1항을 제외하고 모두 수락하였으나 1948년에 집권한 피분정부는 모두 거부하고 이슬람 지도자인 하지쑤롱을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0-6,000명의 타이무슬림이 말레이로 피신하였다. 그후 말레이와 인도네시아는 난태 4도가 말레이연방(The Federation of Malaya)이나 인도네시아(The Indonesian Republic)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이무슬림을 지원하였으나 실제로 빠따니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말레이와의 합병을 거부하고 대신 4도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1957년에 이슬람 지도자들이 1947년 하지쑤롱의 요구를 다시 들고 나오자 피분정부는 강력히 이에 맞섰다. 결국 회교도 중심의 분리독립운동은 지하운동, 무정부주의, 도둑, 강도, 테러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서 타이무슬림 사이에 무슬림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 활동적인 회교도 조직이 방콕에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The Young Muslim Association of Thailand((YMAT))이다. 이 조직은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타이무슬림을 비롯하여 외국의 젊은 이슬람 운동가나 조직과 활발한 연계성을 가지고 국내 청년무슬림을 단결시켰다. 이외에 1968-1969년에는 Barisan National Pembebasan Republic Pattani(BNP-RP)가 난태 4도를 통합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무력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The Pattani Liberation Organization 등도 결성되었고, 말레이 공산당과 타이 공산당도 계렬라운동을 전개했으나 사상적, 종족적 차이가 타이무슬림과 공산주의자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Chandumpai, 1987:236). 1980년대에는 The Barisan Revolution National(BRN)을 비롯하여 방콕까지 세력을 확장한 The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PULO)가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운동을 전개하고 테러행위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이슬람 회복과 무슬림으로서의 자기 주장이라는 개념이 타이무슬림사이에 팽배하여 이슬람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내세웠다.

3. 고산족의 존재와 발전 배경

태국북부에는 태국 정부가 고산족이라고 부르는 약 20 종류 이상의 소수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데(Gordon, 1974:iii) 일반적으로 Lua(Lawa), Htin(Prai, H'tin, Mal), Khamu, Akha(Ekaw), Meo(Miao, Hmong), Yao(lu Mien, Mien), Lahu(Mussur), Lisu(Lisaw), Karen (Kariang, Yang)등 9개 종족을 가리킨다(Bhrusasri, 1987:245).

고산족들은 일반적으로 산 속에 거주한다. 낮은 산 속이 아니라 해발 800-2,000m의 고산지대에, 주로 강이나 샘이 시작되는 곳을 따라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유엔의 통계(1966-1967)에 따르면 고산족의 숫자는 약 28만명이고(Burusapatanan, 1973:2 재인용) 1982년에는 대략 53만명(Burusasri, 1989:8) 정도이며 그 중 카렌족이 가장 많다. 고산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 국토의 약 33%로 73개도 중 17개도에 거주한다. 크게 나누면, 북부 상단 지역과 북부 남단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북부 상단 지역은 치앙마이, 치앙라이, 프래 난, 람빵, 매형썬, 람둔, 파야오, 우뜨라딧 등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와의 국경 지역이며, 해발 600m 이상으로 산원강을 비롯해 태국의 주요 강의 빌원지가 있다. 북부 남단 지역은 딱, 쑤코타이, 피싸누록, 까팽펫, 피찌, 펫차분, 나컨싸완, 우타이타니 등으로 토질은 비교적 비옥하나 홍수가 잦으며 논농사지역이다.

태국 북부의 산들은 대체로 비옥하다. 고산족들은 산봉우리, 봉우리사이의 골짜기, 능선, 기슭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한다. 이 북부에 고산족이 이주해 온 시기는 종족마다 다르지만 타이족보다 먼저 거주한 종족도 있다. 특히 카렌족과 몬-크메르계 고산족은 이 지역의 원주민이다. 몬-크메르족은 타이족이 남하하여 세력을 장악하자 일부는 동남쪽으로, 일부는 산속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동남아계 고산족으로 Lua, Khamu, H'tin, Pitongreuang, Khahaw 등이다. 또 한 간대는 미얀마, 라오스, 중국에서 이주해 온 종족으로 티벳-버마계 고산족과 중국인이나 티벳-버마계는 주로 티벳의 영향을 받은 종족으로 약 200년 전부터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Akha, Lisu, Lahu, Karen이 있다. 중국계 소수종족은 중국의 파이짜오, 유난, 훈남, 꽝씨 등지에서 통킹,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약 100년 전에 태국 북부에 온 종족으로 Meo, Yao, Haw 등이다. 중국계 소수종족 중 허(Haw)족은 2차세계대전 당시 국민당군과 함께 이주한 사람들로, 이미 소수종족으로 간주되지 않을 정도로 태국식 교육과 태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정착하는 등 태국에 농화되었다.

고산족들은 산동성이나 경사진 곳 중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을 활활 흩어져 살며, 한 곳에서 거주하다 토질이 떨어지면 다시 좋은 땅을 찾아 옮기는데, 동남아계는 낮은 지

역에, 티벳·버어마계는 높은 지역에 산다. 메우족은 1,500m 이상, 야오족은 900-1,000m, 리쑤, 라후, 이꺼족은 1,200m 이상의 산 속에 거주하나 카렌족은 600m미만의 계곡이나 산기슭, 언덕 등에 거주한다.

고산족들은 각기 독특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타종족이나 태국사회와 절연한 채 고립되어 산재한다. 비록 타종족과 인접하여 위치해도 왕래가 없고 혼인도 하지 않는다. 각 종족은 종족마다 상이한 복식, 언어, 종교, 풍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을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한다. 라후, 리쑤, 이꺼는 경우에 따라 통혼하나 다른 종족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가족형태도 종족마다 다르다. 라후족은 일부일처제이나 메우, 야오, 리씨는 일부다처제로, 처의 숫자가 바로 남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대가족은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데, 부부와 그 자녀,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가족과 함께 산다. 특히 부족마다 다르기는 해도 여자가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고산족은 가족간의 관계가 밀접하며 효심이 깊다. 가족은 바로 경제, 생산, 교육, 사회, 제사, 종교의식, 휴식 등 모든 것의 공동체로 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토지소유권은 누구든 개간한 사람에게 속한다. 아무리 높고 있는 토지가 많아도 자기가 개간한 것이 아니면 개간자의 동의를 받아야 경작할 수 있다. 무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각 마을마다 적어도 한 사람씩 있으며, 제사를 담당한다. 이들이 마을이나 종족의 중요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데, 큰 마을이나 종족은 각기 임무가 다른 여러 명의 무당이 있다. 라후족과 리쑤족의 무당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 많은 권한을 소유하며, 특히 라후족의 무당은 종교적 행사를 집행하는 지도자이며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권한도 대단하다. 이장이나 종족 장보다 더 우세하며, 대개 이장은 무당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무당은 각종 의식을 주재하고 주술이나 주문을 이용하여 악귀를 쫓아내는 일 외에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 같은 종족이라도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한 마을의 통치권은 대개 주민이 선출하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있으며,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동장이나 이장은 선출된 이후 태국 정부로부터 이장으로 임명된다. 무당이 이장이나 동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장의 기능은 마을을 통치하며 치안유지에 힘쓰는 것이다. 그 마을에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각종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며 새 거주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또한 태국정부의 관료와 연락하는 일을 한다.

고산족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다. 이들은 대개 노동집약적 농업을 하는 화전민이다. 이들이 재배하는 작물은 녹, 옥수수, 양귀비, 고추, 도마도, 향료, 콩, 호박, 납배 등이다. 800m이상의 고지대에 사는 고산족은 2-3년에 한번씩 이동하며 밭벼를 재배하고, 낮은 지대에 사는 고산족은 총계논에서 논벼를 재배하기도 한다. 닭, 돼지, 소, 말 등을 기르며, 특히 카렌족은 코끼리를 사육하여 운송에 쓰거나, 대여함으로써 소득을 얻는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생활이 자급자족에 의존한다. 여성들은 실을 갖고 천을 짜며 염색을 하여 옷을 만들고, 생활용품도 스스로 만든다. 특히 야오족은 수를 잘 놓는다. 은세공도 정교하게 하며, 의식에 필수품인 술을 빚는 양조기술도 뛰어나다. 과거에는 부족한 물품은 물불교환으로 보충하였는데 주로 허족의 상인들과 교역이 이루어졌다. 허족들은

오지까지 들어가 장사하며 아편도 거래하였다. 현재는 화폐를 사용한다. 야오족은 자립촌에서 상점을 열고 장사를 하기도 하며, 노회지나 태국인 마을 가까이 사는 고산족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들고 내려가 직접 거래한다.

III. 소수 종족과 태국 사회의 관계

1. 화교와 태국 사회

화교의 존재는 13세기경부터 태국의 역사기록에 등장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민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이 기간 동안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태국인이 되어 버렸다. 화교들의 생활상은 태국과 중국의 혼합식이다. 초기 이민 1세는 교육 수준이 낮아 무학이거나 국민학교 졸업수준이었다. 또 중국 여성들이 이민을 오지 않았으므로 일부 중국인들은 태국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들로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중국식 교육을 시켰다. 중국식 변발을 하게 하고, 가정교사를 두거나 서당식 학교에 보내 중국어 교육을 받게 하였다. 부유한 화교는 자식을 중국으로 유학시켰다. 그러나 전후 세대인 이민 3,4세들은 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였고 중국어는 거의 하지 못하나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다. 2세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인 것에 비하여 이들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한편 나중에 이민 온 이민 1세 여성들은 무학이어서 집안 일이나 아이 양육이 전부였으나 그 후세들은 태국식으로 교육받고, 성장하여 태국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활동한다.

중국인들은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는 종족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 중 태국에 거주하는 화교가 특히 워주빈 사회에 크게 동화되었다(Angkinanta, 1972:39). 그 이유는 수백년간 중국과 태국사회가 서로 접촉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외모와 용모, 피부색이 유사하여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종교면에서 비록 종파는 달라도 불교를 위시하여 귀신이나 영험한 어떤 것들을 공통적으로 믿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라이왕때 뿐만 아니라 라마 5세도 1907년에 “태국내에 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노동이나 이윤을 추구할 기회를 태국인과 똑같이 갖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며 태국의 한 구성원으로 영고성쇠를 함께 할 주체로 생각한다”(Purcell, 1965:116)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라마 5세까지는 중국인에 대한 간접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며,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태국에 이민 온 중국인들도 같은 중국인이라 해도 동향사람이나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약했다는 것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출신 지역이 다르면 대개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만 어울렸다. 태국에 이민온 중국인들은 크게 언어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즉 Cantonese(Kwangtung 중심), Hokkien (Fukien), Teochius(Chao-chou), Hakkas(Chia-ying-chou), Hainanese(Hainan)으로 이들은 종사하는 직업도 달랐다. Cantonese는 기계공이나 목수, Hainanese는 하인, 특히 유럽인

의 고용인이나 중국음식점 을 경영하였다. Hokkins는 아유타야 왕국 때 왕실내 시종 및 시녀로 많이 들어왔다. 또한 푸껫, 빠따니, 쟁클라, 라泞동 남부 지역에 정착하여 이 지역의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 나중에 지방정치에 참여하였다. Teochius는 톤부리시대에 이민 온 사람들로 현재 화교 중 가장 숫자으로 우세하다. 딱션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은 왕의 남다른 배려를 받아 Royal Chincse화 하기도 했다.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한 이들은 뜨랏, 짜부리, 촌부리, 차웽싸오, 방콕 등 타이만 동부에 정착하였다가 1908년에 철도가 부설된 후 우뜨라녓, 나컨싸완, 피켓, 피싸누록, 싸완카록, 덴차이 등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Chantavanich, 1990:245-246).

1970년대부터 태국내 화교는 고령화, 태국에 영주하려는 의식의 강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존립에 대한 위기심의 고조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태국사회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있다. 화교 후손들은 태국 사회에 적응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언어와 전통문화의 고수라는 측면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틈이 벌어지며, 이 틈은 양자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민 1세나 2세와 달리 이민 3, 4세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의 피를 받았지만 스스로 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특히 태국인과의 혼인이 성행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화교들은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태국인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풍습, 즉 장례, 결혼, 제사, 명절 등에 대한 중국의 문화나 풍습이 아직도 남아 태국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2. 타이무슬림과 태국 사회

타이무슬림에게 이슬람이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을 제공한다. 코란에 나오는 모든 교리와 이슬람법이 바로 타이무슬림의 정신적 지주이자 생활의 원리이다. 뽀독(pondok)은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부유한 타이무슬림은 자녀를 중동의 이슬람학교에 유학보냈다. 타이무슬림 중 65%가 태국어를 모르며 40%정도가 문맹으로 말레이어도 쓸 줄 모른다. 이러한 무슬림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태국이 자신들의 조국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불교도인 태국인들도 역시 말레이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같은 국적의 태국인이라해도 통역없이는 언어가 소통되지 못한다(Madakakul, 1980:97).

1980년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태 5도의 52.3%가 무슬림이며, 쟁클라를 제외한 4도는 71.2%가 무슬림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티왓 78.47%, 빠따니 77.53%, 싸뚠 65.99%, 앤라 62.79%, 쟁클라 19.47%가 무슬림인 것이다(Chandumpai, 1987:229). 그러므로 이 지역의 관료들은 불교도라해도 태국어외에 말레이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남부지역 관료에 대한 정부의 채용지침이 달라져 말레이어를 하는 관료를 채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시 무슬림에 대한 이해, 특히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슬림을 무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했으며, 국내적으로 소란을 야기시키는 집단으로 무슬림을 보았다. 이러한 무슬림과 불교도 관료간의 문화적, 종교적 갈등은 결국 국민과 정부간의 갭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 갭이 부정부

폐의 온상이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반정부인사가 되어 분리독립운동에 동조하여 태국의 연속과 고립의 계속을 초래했고, 결국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빙곤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남태 4도에 거주하는 타이무슬림은 빠따니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이 대단히 강하고, 이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다. 나라티왓에 있는 낡은 회교사원을 헐고 새로 더 큰 사원을 짓자는 안이 노의회에서 결정되었으나, 이곳 주민들은 낡고 작아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하였을 정도로 이슬람문화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이 지역의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빙곤하다. 반면 인도계 무슬림들은 주로 시아파로 아유타야왕국 시절부터 해상무역에 종사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들은 빠끌랏, 쌔붓쁘라간 등 방콕의 남부 해안에 거주한다. 파키스탄계 무슬림은 전국에 걸쳐 거주하는데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며 점차 상업에도 눈을 돌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중국계 무슬림으로는 태국 북부에, 특히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허족이 대표적이다.

3. 고산족과 태국 사회

태국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서쪽이 높고 중앙지대가 낮고 동쪽은 고원지대이다. 북쪽에는 높은 산맥들이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이 산맥들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의 발원지가 되며, 극창지대인 중앙저지대의 첫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산족들은 해발 800-2,000m의 릴럼이 우거진 산지 중 폭포나 강 등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집중하여 사는 화전민들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국 토의 약 1/5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같은 종족 안에서도 상당한 언어적 차이가 존재한다. 고산족들은 각기 녹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웃만 보아도 종족을 구별할 수 있다. 언어도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메우족이라 해도 Blue Meo나 White Meo 사이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카렌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S'kaw Karen, Pwo Karen, B'phwc Karen Taung Thu 사이에는 서로 언어가 유사해도 의사가 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가 다른 종족간의 소통은 중국어, 태국어, 라오스어, 또는 다른 종족어 등 쌍방이, 또는 상대방이 아는 제3의 언어를 매개체로 한다.

고산족의 경제는 원칙적으로 자급자족경제이다. 모자라거나 없는 기타 생필품은 물물교환을 통해 구한다. 허족 상인들이 생필품을 싣고 산족을 왕래하며 물건을 공급해주고 고산족들이 생산한 물품을 매입하였다. 이들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며, 가축도 기본다. 삼림을 별목하여 논이나 밭으로 만들어 경작하고, 2-3년에 한번씩 이동한다. 그러므로 삼림훼손, 양귀비재배, 국가안보문제들이 고산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산족은 대부분이 문맹이다. 특히 여성들은 문맹이며 위생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도 없다. 따라서 유아사망율도 높고 수명도 짧다.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이루는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는 양귀비재배로 이름난 지역

이다. 양귀비는 Meo, Lisu, Yao, Lahu, Akha, Karen⁵) 재배하고 있는데 이 중 Meo가 수세기동안 가장 많이 재배해 왔다. 고산족들은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재배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작지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들이 양귀비 재배를 택하게 된 이유의 하나이다. 1,600평방m당 쌀 생산량이 약 470.1kg으로 약 404 바트의 소득을 얻는데 비해 양귀비는 생산량이 1.3kg으로 약 1,300 바트의 소득을 얻는다(Shen Xu, 1990:126). 게다가 쌀은 가격 변동이 있는데 비해 양귀비에서 나오는 아편은 항상 품귀현상이라 안심할 수 있다. 쌀보다 양귀비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또 작은 농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더욱더 선호한다. 양귀비는 10-15년간 한 농지에서 연속 재배하다 5년만 방치하면 다시 재배가 가능하나, 쌀은 2-3년간 연속 재배한 후에는 10년간은 방치해야 다시 그 밭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더군다나 양귀비는 일반적으로 옥수수와 번갈아 재배한다. 옥수수를 4월에 파종하여 8월에 거두고, 양귀비는 9월에 심어 12-2월에 수확한다. 따라서 양귀비의 재배가 쌀농사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다.

고산족의 화전농법에 따른 삼림훼손은 수원오염과 함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산골짜기에서 부락을 형성하고 충계논에서 논농사를 짓는 일부 Karen이 정착된 생활을 하니 고지대에 사는 Karen을 포함한 고산족은 화전민이다. 이들은 화전할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벌목을 한다. 벌목은 대개 겨울철이나 진기인 10월 중순경부터 이루어진다. 나무나 잡초를 벌목한 후 말려서 불을 놓아 태우는데, 이때 생긴 재가 바로 비료가 되며 특별히 다른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해 5월경에 우기가 시작되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 농지에서 2-3년간 계속 경작하다가 소출이 줄어들면 다시 이동하여 다른 장소를 개간한다. 이렇게 2-3년에 한 번씩 옮기다보면 맨 먼저 개간한 곳에는 10-15년만에 되돌아와서 경작한다. 이러한 화전식 이동농경에는 농토를 기주지 근처에 개간하여 농지만 옮기는 방법과 개간토지를 따라 전 식구 또는 전 부락이 이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산족에게는 그들의 화전 방법이 유일한 경작 방법이자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생활방식이며 문화라 할 수 있다. 고산족들은 토지를 부락별로, 때로는 종족별로 공동 소유하며 경작한다. 고산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삼림훼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졌다. 람푼과 치앙마이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숲 67%가 1956-1957년 사이에 훼손되었다. 1973-1977년에는 95,842 평방km의 삼림이 68,588평방km로 감소하는 등 삼림훼손율이 매년 약 5.69%에 이른다(Shen Xu, 1990: 125).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고산족들은 민족이나 국민의식보다는 각기 자기 종족에 대한 애착심으로 공고하게 단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충실하므로 국경의식이 없다. 그저 “같은 종족이면 하나”라는 의식만 강하다. 대개의 종족들이 라오스와 미얀마, 유난성 등지에 걸쳐 산재해 있으므로 서로의 왕래가 잦다. 특히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이후 공산주의 세력이 팽배했던 1970년대에는 일부 고산족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들은 무력으로 고산족을 협박하여 태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야 고산족에 대한 태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4. 소수 종족이 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람캄행왕이 조공사절을 파견한 후 중국으로부터 도기굽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후 불항아리는 쑤코타이왕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화교들은 아유타야왕국 때에는 빠따니를 비롯하여 타이만의 동남부 해안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타이만연안과 푸껫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주석광산을 중심으로 상업기반을 구축하였다. 뱐라加快发展(1630-1655)이 1630년에 직접 왕립무역을 시작하였을 때 외교적 의전 절차를 위시하여 무역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관료로 임명된 중국인에 의존하였다. 왕립금고의 회계와 물품관리는 물론 왕립무역선의 선원도 중국인이었고, 중국식 항해법에 따랐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농공상의 순으로 사회계층이 분류되어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층이 많았던 태국 사회에서 중국인들은 빠른 속도로 부를 모았다. 중국인의 인내심과 근면성이 뛰어난 이유도 있었지만 태국 평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싹디나제도의 탓도 있었다. 평민들은 태국 사회의 척추와 같은 계층으로 모든 생산의 주체였다. 1899년 이전까지 태국의 평민들은 누구나 왕과 관료를 위하여 아유라야왕국 때부터 일년에 6개월(후에는 4개월, 3개월로 단축됨) 격월로 봉사해야만 했다. 왕실과 관료를 위하여 그들의 농사를 지어주는 것은 물론 수로, 사원, 운하나 도로 건설 등 많은 토목 공사에 동원되었다. 게다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소 낙천적이고 놀기 좋아하며, 물질적인 부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다시 말해 관료를 제일 선호하는 태국인이었으므로(Wilson, 1962:84) 공업이나 상업은 천한 직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중국인이 차지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중국인은 사회적으로 태국인에 의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았고, 기타 외국인이 갖는 특혜도 받았다. 중국인과 룩쩐은 라마 6세 전 까지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으며 태국인의 의무인 부역이나 병역을 하지 않고 주로 상업에만 종사하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었다. 19세기 후반에 화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사를 설치해 줄 것을 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때 태국정부는 이를 회피하였다. 그 이유는 서양인에 비해 화교들은 태국에서 태국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만일 서양인들처럼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주게 되면 태국인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당시 내무상이었던 담롱라차누扶贫工作(1868-1910)은 말하고 있다(Premchid, 1972:378-392). 중국인들은 19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일화천금의 꿈을 안고 태국으로 대거 이민을 왔다. 태국정부는 평민들로부터 부역 대신 화폐로 세금을 징수하고, 이 돈으로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국가 건설을 위한 대토목 건설을 시행하였다. 화교들이 태국인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순종적이었으며 기술도 좋았으므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1855년에 영국과 우호통상 조약을 맺고 서양 여러 나라와 문호를 개방한 후 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쌀수출이 시작되면서 쌀은 자급자족만을 위한 품목이 아니라 돈이 되는 상품이었으므로 관료들은 앞을 다투어 토지 개간에 힘썼고,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료는 농·농사에 평민을 동원하였고, 부역 대신 화폐로 세금을 징수하였다. 화교들은 정미업, 제재업, 해상운송업에 참여하였고, 전국 대도

시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일부는 서양인들을 위해 무역중개인 역할도 하면서 은행, 보험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경제 활동은 태국인 뿐 아니라 서양인의 경제 활동도 능가하게 되었다(Ingram, 1966:72). 1890년의 기록에 보면 당시 태국 무역의 독점율은 화교가 62%, 영국이 26%, 인도 8%, 기타와 태국인이 4%로 무역이 화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kinner, 1957:10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화교들은 이민 초기부터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정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진 후(1895) 중국인들 사이에는 중국의 후진성을 깨닫고 중국의 발전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서양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침공에 대하여 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의 화교들은 민족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입헌군주제로 바뀐 뒤 정부는 화교에 대하여 동화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 국적의 중국인의 참여 기업을 제한하고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 중국 국적의 중국인 대신 태국인을 참여시켰고, 아울러 중국인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였다. 중국인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인의 태국 국적 취득의 속도를 촉진시키려고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인 국적 기업에 대해 무기운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정책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느 면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태국인은 기업 경영능력이나 경험에 거의 없고 또 정부주도의 많은 기업에는 이미 태국에서 태어난 화교 2,3세가 경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경부터는 화교-태국인 합작형태의 기업이 출현하거나 태국 고위 관료의 비호를 받는 화교 기업이 나타났다. 특히 전제군주제하에서 관료의 비호를 받던 대상인들이나 기업들이 군의 비호를 받거나 결탁하여 공존, 공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중국인이 태국의 지배엘리트층과 제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1950년대에는 과거 화교 소유의 자본이 태국의 관료 또는 국가 자본과 결탁한 독점재벌이 모든 무역과 이에 관련된 산업을 장악하였다(Samudavanija, 1986:245). 1961년에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사기업을 지원하자 많은 자본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화교들이 화학, 기계, 전기제품, 운송, 은행, 금융업에 손을 대고 국제 자본과 산업적, 금융적 협조를 도모하였다. 결국 화교들은 태국 경제를 산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과거의 가족 중심의 운영체제를 탈피하고 사업을 확충, 공개함에 따라 운영 관리인 또는 전문인의 형태로 태국인이 참여하여 마침내 근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초국가적 투자체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과거 농부였던 대부분의 태국인은 전후의 근대화, 산업화에 따라 시골에서 도시로 진출하여 육체적 노동을 버롯해 태국 사회의 밀바닥을 형성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태국인과 화교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화교들은 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교육열이 높았던 화교들은 자녀 교육에 태국인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였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은 화교들의 수가 많았다. 이들은 태국국적을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선거, 국가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공무원이 되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정치적 이상을 높이기 위하여 화교들은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 경향은 1980년대에 더욱 두드러졌다.

1990년까지 17명의 수상중 8명이, 1990년도 국회의원 357명중 100명이, 44명의 각료중 1/2이 화교이다. 태국국적을 지닌 이들은 정치적 의무와 권리의 지닌 태국인으로서 태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태국의 존립이 바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됨을 깨닫고 있다.

화교가 태국 국적을 취득하여 태국인으로 동화한 것과는 달리 태국 국적을 출생부터 갖고 있으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겪은 소수 종족으로는 타이무슬림을 들 수 있다. 빠따니를 중심으로 남태 4도에 주로 거주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지와 무슬림으로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태국정부와 오랫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소수종족인 타이무슬림은 지리적으로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적 고통이 더 심하였다.

타이무슬림 지도자들이 태국 정부에 요구한 정책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1902년부터 1932년으로 라마 5세가 지방행정 개혁을 단행한 시기부터 민주주의가 시행된 시기이다. 라마 5세(1868-1910)가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과거 지방의 관료나 토후, 술탄들의 세력을 제한하고 중앙집권화하자 술탄은 무슬림들의 종교, 종족, 언어, 역사의 분열을 심히 우려하여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1932년에 입헌군주제의 실현으로 권리, 자유, 평등 개념이 도입되고 의회정치가 실시되자 이슬람식 종교 위주의 정치는 위세를 잃게 되었다. 제2기는 1932년부터 1945년으로 술탄이 영국과 결탁하여 태국에 대항하면서 자치를 요구한 시기로,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말레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타이무슬림 지도자들이 반일운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의 역할이 남태 4도에서 더 강해졌고 이에 따라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정치지도자로 부상하였으며 하지쭈룽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3기는 1945년부터 1973년으로 종교지도자의 역할이 아직 강세이기는 하나, 종교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차원의 지도자로 변신한 시기이다. 종교지도자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이들의 행위나 사고의 결정이 일반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반제국주의, 좌익 이슬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정통적 원리주의자들이 늘어났다. 제4기는 1973년 이후로 군부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세력들이 노출되어 장외에서 대결하는 시기다. 각계 각층의 태국인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정치적 자각을 하게 되고, 특히 청년 및 대학생의 역할이 도시 및 지방에서 확실해지자 무슬림들은 국가차원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동의 회교도국들과 연계되어 영향을 받고 회교도로서의 의식이 발전한 시기다(Pitsuwan, 1980:34-36).

이슬람 정통주의자들은 이슬람을 생활의 원리로 간주한다. 그들의 혈통, 풍습, 관습, 문화, 특히 종교적인 그 어떤 것을 비난하거나 방해받는 것을 거부한다. 남태 4도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는 받았지만, 대외적인 문제는 종주국이 책임지고 대내적인 문제는 종주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며 스스로 처리하여 온 지역이다. 그러므로 태국이 중앙집권화를 단행하여 이 지역의 지방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게 되자 술탄이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태국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태국화 정책과 타이무슬림의 기존의 전통적인 고유 문화와 종교를 지키려는 노력간의 대립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남태 4도가 태국으로부터 정치적

으로 분리 독립하려는 분리운동을 낳게 하였다. 특히 피분송크람(이하 피분)정권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반발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운동에 자극받은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받으며 빠따니가 중심이 되어 분리운동을 시작하였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회교도들의 집단적인 행동조직인 The Young Muslim Association of Thailand(1964, YMAT)의 결성을 시작으로 Barisan National Pembelaan Republic Pattani(1968, BNP-RP), National Liberation Front, Pattani Liberation Organization(1970, PLO), Communist Party of Malay(CPM), Communist Party of Thailand(CPT),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1975, PULO), Barisan Revolution National(1980, BRN)등이 조직되어 테러와 공공 건물 폭파, 무장 투쟁 등의 행동을 전개하여 국내 치안 및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IV. 태국정부의 소수종족에 대한 정책

태국에는 타이족과 문화와 종족을 달리하는 여러 종족이 있다. 그 중에서 숫자으로 많고, 또 녹특한 성향을 가진 종족이 화교와 고산족 그리고 타이무슬림으로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태국은 이를 소수종족에 대하여 태국인으로서의 동화와 통합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들은 너러는 실효를 거두기도하고 너러는 실패하였다. 태국정부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970년대에 들어서 각 소수종족의 특성을 감안한 각기 다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편의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화교를 시작으로 타이무슬림, 고산족의 순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많은 학자들이 태국내 화교들이 태국에 동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스키너(Skinner, 1958: 227) 교수는 일부 화교는 태도나 복장, 사업상 환경 등에서 태국인보다 더 태국인다우며, 많은 태국의 지도자들이 문화나 종족상으로 보면 모두 화교들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들은 태국사회에 잘 동화되어 있다. 윌리암스(Williams, 1966:91)도 중국인이 태국사회에 동화되어가는 속도와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태국이라는 동화의 용광로가 마치 펄펄 끓는 것 같다면, 미국내의 화교가 미국사회에 동화되는 정도는 단지 꽉꽉 소리만 내며 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유하였다.

라마 6세(1910-1925)가 태국내 화교를 돋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민족주의자이며, 동양의 유태인이다(Tirawanich, 1977:74-76)라고 비난할 정도로 화교는 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였다. 태국정부는 화교의 수가 날로 증대하자 1927년에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의 수를 한정하였다. 매년 18,000명, 15,000명에서 1947년에는 10,000명, 1950년에는 200명, 그리고 1979년에는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정치적으로 태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태국국적을 취하도록 하였다. 중국인 2, 3세도 자신이 원활 경우에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라마 6세 이후 직접, 간접적으로 법적 차별대우를 받거나 제제를 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태국에서

생활하며 정착하는 과정에서 태국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졌으므로 중국 문화가 도리어 이질적인 것이 되어, 전후에 귀국한다는 사실은 큰 부님이자 모험이었다. 그러므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은 스스로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명실공히 태국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이들의 태국국적 취득경향은 1946-1948년에는 년 48명, 1950년대는 100명 미만, 1960년대는 300명 미만, 1970년대는 400명 이상, 그리고 1980년대에는 수백명에 이르렀으며, 1982년에는 1,000명 이상으로 매년 5.6%의 증가를 보였다. 1988년 현재 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화교의 수는 약 25만명으로 전체 태국인구의 0.5%정도이며 이들의 연령층도 대부분 60-70세이다(Jiang Bai-Chao, 1990:233).

이렇게 화교들이 태국사회에 쉽게 동화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몇가지만 추려보겠다. 첫째,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속지주의의 시행이다. 외국인들에게 거의 반강요하다시피 강력히 시행하였다. 국적 취득과 동시에 태국식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태국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했고,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전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둘째, 화교와 태국인 사이에 특정한 종교적 장벽이 없다는 점이다. 타이무슬림과 달리 화교는 태국인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애니미즘, 귀신 등을 믿고 있어 쉽게 융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외모적으로 유사하고, 피부색, 풍습도 비슷한 점, 화교가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의 종교는 순수한 대승불교가 아니라 조상 숭배, 애니미즘, 도교, 유교 등의 복합체였으므로 태국인의 애니미즘, 소승불교, 토속신앙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세째, 중국인의 뛰어난 현실 적응력과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다. 네째, 태국의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태국정부는 의도적으로 중국인 학교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꾸었는데, 특히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방콕내에서 중국인 학교의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화교의 자녀들에게 태국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보다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화교의 자녀들은 부역계나 상업계에서 중국어대신 태국어와 영어가 유리하게 되자 중국학교 대신 태국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화교들은 부지런하고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았으므로 학교에서 보다 나은 성적을 올렸고, 대학교육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졸업 후 이들은 관료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정계에도 진출하였다. 다섯째, 중국의 공산화가 화교의 태국국적 취득을 자극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자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화교들은 조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중국을 친양하고 농경하는 대신 반공산주의자가 되어 오랫동안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태국의 국적을 취하였다. 중국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 외에도 이미 1,2세들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화되었으며, 태국식 교육을 받은 신세대는 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태국정부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안보의 측면에서 부모가 중국국적을 가진 태국인을 군대나 경찰에 채용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의 사장, 학교 교장도 태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만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자신이 가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적을 바꾸게 되었다. 1968년 선거법 16-19조에 보면 부모가 외국인인 태국인은 태국 군에서 병역 의무를 필하거나 태국학교에서 종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슬람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회교도의 믿음과 행태를 결정한다. 코란에는 과학, 예술,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들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지표와 행위의 기준을 설정해 준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는 종교와 문화는 동일한 것이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슬림이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는 문화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이슬람 경전의 내용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다. 남태 4도의 무슬림들에게 있어 일상 생활의 지표나 방향은 첫째, 이슬람의 가르침이고 둘째는 옛부터 전해오는 관습과 인습 그리고 행동 규범들이다. 이것들은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이 이슬람이고 어느 것이 관습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타이무슬림은 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적, 종교적 이유를 들어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였다. 피분정부가 1939년 6월부터 1942년 1월까지 12개의 정부령을 통해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타이무슬림에게 문화적 농화를 강요하였다. 태국어를 공용어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태국어 교육과 태국식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비롯하여 무슬림이 가장 혐오하는 서양식 문화를 불교, 민족의 통합과 통일이라는 이름을 씌워 강행하였다. 무슬림에게도 서양식 복장과 식생활을 강요하여, 쟁이 달린 모자, 서양식 치마나 바지, 구두, 깃이 달린 상의, 서양식 휴일을 준수하고 모든 종교 의식은 휴일에 할 것 등을 강요하였다(Sayamanonda, 1977:115-117). 이렇게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어서 타이무슬림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무슬림은 이는 동화정책이 아니라 무슬림을 말살시켜 버리려는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이에 맞섰다. 태국정부는 무슬림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등 무력으로 대응하였다. 신세대 지도자들은 말레이시아로 피신하여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잔류한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무슬림 사회를 보호하려 하였다(Suhrkc, 1970:538). 그 후 싸릿 정부는 수도와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경제사회개발계획을 1961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도 남태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과 존재, 사회적 가치를 위협하는 시책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Che Man, 1990:163).

태국정부가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한 시기는 무슬림 자신들이 분리독립운동을 격렬하게 벌인 이후라고 해도 별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태국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공존을 내세워 정책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1963년부터 남태에 파견되는 관료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무슬림과의 갈등을 줄이고자 태국정부는 관료의 선발기준에 영어와 말레이어를 추가하였다. 1976년에는 말레이 사투리와 이 지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과목도 추가하였다. 이슬람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무슬림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관료들을 교육시켰다. 관료가 직접 무슬림 동네에 가서 이동홍보를 하도록 하였고, 무슬림 지도자와 무슬림 관료들을 방콕이나 대도시에 연수시켰다. 이슬람위원회가 주재하는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무슬림 스스로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였으며, 15-20세의 무슬림 청소년연맹의 회원들을 장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무슬림을 이 지역 관료로 채용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무슬림 청소년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혀 주었다. 쟁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교, 전문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주고, 무슬림의 봉습이나 풍속, 문화, 전통을 존중해 주며, 정부가 스스로 국제 코란읽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무슬림의 사기를 높이고 태국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무슬림으로 하여금 태국학교에 다니도록 권유하여 무슬림이 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개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의 교육에서 태국어를 강의하는 강립이슬람학교로 만들어 더 많은 무슬림이 태국식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학생이 고등교육 과정을 위한 시험에서 낙방하는 비율이 높자 정부는 1970년부터 무슬림에게는 입학 특례 혜택을 주었다. 교복 대신 이슬람 전통 의복을 착용해도 되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특례를 받은 수백명의 학생은 졸업 후 관료로 채용되었다. 이들은 서서히 태국인 사회에 농화되어 가면서 외국에서 이슬람식 교육을 받은 타이무슬림과 사회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결국 타이무슬림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좀 더 나은 생활로 향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특례가 어느 면에서는 차별적 우대 정책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했으므로 쿠릿정부(1975-1976)는 무슬림에 대한 이 특례를 폐지하려 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폐지를 보류하였다.

교육받은 무슬림을 관료로 채용하는 제도가 남태에서는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다. 무슬림 관료의 채용을 통해 무슬림 마을과 정부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로서 상호 융합점이 모색되어 태국사회에의 통합을 용이하게 해 준다. 모든 무슬림이 다 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남태를 제외한 타지역의 무슬림은 태국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코란도 태국어로 된 것을 사용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좀더 나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태국정부는 고무농업을 지원하고 융자 알선을 해주며 불교도와 함께 자립촌운동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자립촌에서 불교도 태국인과 타이무슬림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태 4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각종 협동계획이 말레이시아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회유책에 힘입어 1982년 9월에서 1983년 10월 사이에 약 450명 가량의 테러리스트가 투항하였다.

1973년대에 공산주의 세력이 고산족들에게 침투하고 삼림훼손이 태국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아편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자 태국정부는 고산족에게 교육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정착하도록 권유하였다. 고산족의 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교육을 보급시켜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넓혀주고 현실을 이해시키려 했고, 이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를 좁히고자 했다. 직업교육, 위생교육, 거주지 개선, 재배작물 소개 등을 통해 고산족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시키며 정착된 농경생활로 유도하고, 양귀비보다 더 나은 작물을 소개하여 양귀비 재배를 근절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관료에 대한 고산족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산족도 태국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이동교육 등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태국어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와 애국심을 도모하였다. 둘째, 초등교육국, 복지국, 지방경찰국, 국경경찰이 협력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동학교, 계절학교를 창설하

여 아동들이 국교 4학년 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셋째, 태국왕실도 고산족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장학금을 주어 도시에서의 교육을 주선하였다. 교육이 끝나면 판료로 채용한 후 고산족의 학교 선생으로 파견하였다.

1953년에 국경경찰대를 창설하여 고산족의 안보와 총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웠고, 1964년에는 정착된 생활을 연구하기 위하여 치앙마이대학교에 부설 고산족연구소를 두었다. 화전을 중지하고 영구히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영농법을 지도했으며 토지를 할애하였다. 고산족의 소득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왕실의 주도하에 가내수공업, 전통수공예, 염색, 직조, 금속 세공, 죽세공, 양복제조, 은세공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상품의 판매도 주선해 주었다. 고산족의 자치 거주지를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지에 마련해 주어 자신의 고유 문화를 간직하고 태국국민의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결과 1974년에는 100,000명 이상이 태국국적을 취득하고 40,000명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Karen과 Lua족은 상당수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화전민이 남아 있어 수천년간 지켜온 자신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농경법을 고수하고 있다.

V. 결 론

지형적, 역사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종족이 함께 살게 된 태국에서 정부의 관심을 보다 많이 끌고 있는 소수종족으로 화교, 타이무슬림, 고산족이 있다. 화교는 13세기 이전부터 인도지나반도에 정착하였다. 문화적으로 태국인과 동질성이 많은 화교들은 타종족보다 쉽게 태국사회에 동화되어 정착하였다. 그러나 19세기경에 이민온 화교들 중 일부는 아직 태국국적을 취하지 않아 어느 면에서는 동화는 되었어도 외국인으로 남아 있다. 수세기를 태국에서 정착하는 동안 화교들은 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정책을 통해 완전한 태국인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미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있던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통합정책에 스스로 동조하였다.

말레이족인 무슬림은 불교도인 태국인이나 중국인들과는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타이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며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태국정부는 이러한 무슬림에 대하여 무력으로 밀어 붙이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근 회교국가 말레이시아의 지원을 받은 남태 4도는 정치적 분리를 위한 독립투쟁으로 맞섰으며 무장항쟁과 테 행위를 산발적으로 벌였다.

고산족은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지대인 밀림지대, 그것도 해발 800-2,000m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 종족적으로 태국인과 다른 고산족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고산족끼리도 종족이 다르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 서로 왕래가 없다. 이들은 화전을 일구어 벼와 양귀비 등을 경작한다. 화전으로 인한 삼림훼손과 수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양귀비 재배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2-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며 화전을 하는 이들에게는 국가나 국경 개념이 없고 종족 의식만 있다. 따라서 태국인으로서의 의식도 애국심도 없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화교들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스스로 태국사회에 동화하려는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슬림들은 태국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과거 오랫동안의 차지에서 비롯된 강한 독립의식, 무슬림과 타이족간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질성의 존재로, 태국정부와 대립하였으며 정치적인 분리독립운동까지 벌였다. 한편 높고 깊은 산속에 거주하며 자연에 묻혀 외부세계와 격리된 채 생활하는 고산족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언어, 문화를 아직도 고수하며 태국이라는 사회에 섞이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에 대하여 태국정부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 이르러서야 각 종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용하여 태국국민의 일원으로 흡수,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종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융합점과 적응점을 모색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무슬림에게 특례를 주어 태국식 교육을 권장하고, 교육의 이점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다. 대민 창구인 관료에게 말레이어와 무슬림 문화를 교육시켜 무슬림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무슬림 관료를 채용하고, 말레이어 방송과 신문을 발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타 이무슬림간의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문화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고산족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태국인으로서의 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또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저지대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고산족은 숫적으로 적은데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몰려 사는 무슬림이나, 처음부터 태국인들과 어울려 살던 화교의 경우에 비해 이들을 동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서히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고산족이 늘고 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성향을 가진 채 태국인과의 접촉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소수종족에 대하여 태국정부는 왕실을 선두로 각 종족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교육, 양보, 설득, 홍보 등의 온건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에서 공존의 방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애

1986 『태국사』, 서울: 관악서당.

Angkinanta, Polkul

1972 *Bodbad chadchin nai pratesthai nai rajkarnti 5* (The Role of the Chinese in Thailand in the Reign of RAMA V), Bangkok: Prasarnmitra.

Bhrusasri, Wanat

1987 "Minorities and Politics: Hill-Trib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Strategi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ICTS)* 3: 245-254.

1989 "Government Policy: Highland Ethnic Minorities," John Mckinnon and Bernard Vienne(ed.), *Hill Tribes Today*. Bangkok: White Lotus-Orstrom.

- Burusapatana, Khachadpai
 1973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the Hill-Tribes in Thailand,"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 1-25.
- 1985 *Chaokhao* (The Hill-Tribes), Bangkok: Praepitaya.
- Chalainadecha, Prayoonsakdi
 1988 *Muslims nai pratesrhai* (Muslims in Thailand), Bangkok: Masyidtonson.
- Chandumpai, Noi
 1987 "The Muslims Situation in the Southern Thailand," *Proceedings of ICTS* 3: 229-244.
- Chantavanich, Supang
 1990 "The Origins of the Chaochou Chinese in Thailand," *Proceedings of ICTS* 3: 246-256.
- Che Man W.K.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r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Dhiravegin, Nopamas
 1974 "The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Comparative Study with a Special Case Study of Thailand," *Journal of Social Studies* 1: 86-103.
- Ingram, James C.
 1966 *Economic Change in Thailand since 18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iang Bai-Chao
 1990 "The Presnt Situ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and Ethnic Chinese in Thailand," *Proceedings of ICTS*, 3: 225-232.
- Jianmin Chen
 1990 "The Changes of the Chinese Society in Thailand," *Proceedings of ICTS* ,2: 237-245
- Kuwinpant, Achara
 1990 "The Chinese in Thailand: Resources at the Thailand Information Center," *Proceedings of ICTS*, 2: 525-557.
- Madakakul, Scnee
 1980 "The Present Situation in Southern Provinces," *Asian Review* 1: 89-128.
- Mottin, Jean
 1980 *History of the Hmong*, Bangkok: Rung Ruang Ratana.
- Pitsuwan, Surin
 1980 "Elites, Conflicts and Violence: Conditions in Southern Border Provinces," *Asian Review* 1: 27-56.
- 1982 *Issues Affecting Border Security between Malaysia and Thailand*,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 Premchid, Siri

- 1972 *Bodbadmuangchin* (the Role of China), Bangkok: Prachag.
- Samudavanija, Chai-Anan
- 1986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in Robert Scalapino, Seij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Sayamanontha, Rong
- 1977 *Prawadisadrathai nairabob ratathanmanulthai* (History of Thailand after 1932), Bangkok: Thai Watana Panich.
- Shen Xu
- 1990 "The Mode of Production for the Mountainous People in Thailand" *Proceedings of ICTS*, 2: 121-132.
- Skinner, William C.
-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uhrke, A.
- 1970 "The Thai Muslims: Some Aspects of Minority Integration," *Pacific Affairs* 42(4)
- Sukalaratanamaethee, Praprudh
- 1975 "The Legal Status of the Overseas Chinese in Thailand," *Journal of Social Science* 3: 30-46.
- Tirawanich, Sukanya
- 1977 *Prawadisadra nangsuepim nai pratesthai paitai rabobsomburanyaya sitiraj 1882-1932* (History of Newspapers in Thailand 1882-1932), Bangkok: Thai Watana Panich.
- Victor, Purcell
-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Ica E.
- 1966 *The Future of the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New York: McGraw Hill Book.
- Wilson, David
- 1966 *Politics in Thail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yatt, David K.
- 1984 *Thailand: A Short History*, Bangkok: Thai Watana Panich.
- Young, Gordon
- 1974 *The Hill Tribes of Northern Thailand*, Bangkok: Siam Society.

Ethnic Minority Groups in Thailand

Youngaih Kim

In Thailand, there exist a number of small ethnic groups whose culture, history, religions and languag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hai. They are the Chinese, the Malay-Muslims, and the Hill-Tribes, to mention a few.

The Chinese have integrated easily into Thai society because of their long settlement in Thailand, their intermarriages with the Thai, common religious background, similar physical features,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Thai government.

The Malay-Muslim are a majority group in the southern provinces of Pattani, Naratiwat, Yala and Satun. The Thai government has maintained a divide-and-rule policy in these provinces for the Malay-Muslims. The relations between the Malay-Muslims and the Thai government have been particularly tense and with serious conflicts, caused by the antagonistic religious belief and national identities. Though the Malay-Muslims are forced to be integrated into Thai society, they have been engaged in the separatist struggles against the Thai government to secure an autonomous state of Muslims in the region.

In the northern mountainous region of Thailand, there are more than 20 Hill-Tribes, including Yao, Meo, Khamu, Akha, Lisu, Lahu and Karen. These Hill-Tribes have employed slash-and-burn farming method, moving from place to place every 2-3 years to make new fields out of jungle. Their form of agriculture has caused a large-scale destruction of forest, a serious problem faced by the Thai government. The Hill-Tribes are nomadic people, living in the border areas between Thailand, Laos and Myanmar,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stoms from the people living in the plain. Thus, they lack a sense of nationality as the Thai people and their national identities do not fit well into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s.

The Thai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integrate ethnic groups into the main-stream Thai society through education, persuasion, and, also, by force. The Thai royal family are often instrumental in implementing national integration policies. By taking more tolerant attitudes towards distinctive cultures of ethnic groups, the Thai government has recently achieved a certain degree of national integration even for the defiant Thai-Muslims and Hill-Tribes.

김영애,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주소: (110-190)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
 Tel : 961-4219(O), 739-5210(H)
 Fax : 900-7898